
▪	P2P	<i>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i>
16		.

●가치 창출의 새로운 생태계●

커먼즈 기반의 피어생산(peer production)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지식, 코드, 디자인의 공유된 커먼즈 주위에 세 개의 기관이 있다. 생산 공동체, 커먼즈 지향 기업가연합, 그리고 지원단체이다. 이 생태계는 풍요로운 환경에 가루받이를 하는 식물로 그려질 수 있다.

디지털 커먼즈

식물의 꽃과 줄기는 커먼즈로 간주될 수 있으며 비경합적, 심지어는 환경합적 자원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자원을 끌어다 쓰면 쓸수록 자원은 더욱 강화된다.) 이 커먼즈는 특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확대되고 변경되고 그 목적이 재설정될 수 있다.

커먼즈 지향 기업들

지식의 커먼즈로부터 가루받이를 하는 벌들의 공동체는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Commons-oriented Entrepreneurial Coalitions)을 형성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의 자원의 주위에서 시장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커먼즈를 산출하는 공동체의 생계를 확보하는 한편 추출적이 아닌 생성적(generative) 실천들을 통해 모양을 풍요롭게 만든다.

생산 공동체

생산 공동체는 생태계를 먹여살리는 풍요로운 토양이다. 기여자들이 바로 영양소들로서 프로젝트를 그리고 연계 시스템들을 살지게 한다. 자원자든 급여를 받은 사람이든 기여자들 모두가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을 생산한다.

지원단체

지원단체(for-benefit associations)는 생태계를 담아 보호하는 든든한 단지이다. 그러나 커먼즈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지는 않는다. 이는 풍요 지향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단체로서 기여하는 공동체들과 기업가연합으로 하여금 커먼즈 기반의 피어생산(common-based peer production)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특수한 라이선스를 통해 커먼즈를 보호하며 그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이 가치 창출의 생태계 전체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는 것을 돕는다. 이 경제는 커먼즈에 기반을 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커먼즈를 적극적으로 파수하고 보호한다.

* 이 그림 설명은 P2P재단이 작성한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에서 16면의 그림 설명의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